

김연아·박인비 등 스타발굴의 명가 KB, 이번엔 여자농구 우승

리딩뱅크 이끈 윤종규의 신뢰·소통, 스포츠에도 먹혔다

(KB금융그룹 회장)

최연소 MVP에 박지수 선수 선정 'KB스포츠패밀리' 구축에 힘써 리딩뱅크 등 다방면서 시너지 기대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다. 기자단 101명의 표표를 받았다. 박지수 선수는 만 20세 3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정규리그 MVP에 올랐다.

앞서 KB스타즈는 지난 3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부천 KEB하나은행과의 홈경기에서 71 대 65로 승리하면서 2위 아산 우리은행을 제치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KB국민은행 성채현 소비자브랜드전략그룹대표는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으로 직원의 사기가 제고됐다"며 "윤종규 회장과 구단주인 허인 행장의 리딩뱅크 전략과 맞물려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B스타즈의 성공은 KB금융그룹이 스포츠마케팅 명가로서 쌓은 그간의 노하우가 바탕이 됐다. 특히 윤 회장의 지원

KB국민은행의 스포츠 마케팅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했다.

그동안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골프 박인비 선수 등 개인종목 유망주를 발굴해 스타로 만들었다면 이번엔 여자프로농구(WKBL) 'KB스타즈'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해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의 우승이다. KB의 박지수 선수는 최연소 MVP로 리바운드와 블록상, 우수 수비상, 윤덕주상(국내 선수 공헌도 1위), 시즌 베스트5 등 6관왕을 차지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리은행 2018~2019 WKBL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MVP로 청주 KB스타즈 박지수 선수가 선정됐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첫번째줄 왼쪽 세번째)과 구단주인 허인 KB국민은행장(왼쪽 두번째)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다.

과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남자골프대회인 2018년 KB금융 리브챔피언십도 가족단위 갤러리, 선수 예우 중심의 대회를 표방하며 패밀리 갤러리 이벤트, 선수 킷탈락 지원금 및 선수전용 라운지 지원 등 여자메이저대회의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결과 갤러리 흥행 상위 5위 안에 들며 성공적인 첫 대회를 열었다.

계약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던

박인비·오지현·안송이 선수 모두 KB스포츠패밀리로 남는 것을 선택했다. 단순 계약관계를 넘어서 KB패밀리라는 오랜 신뢰관계가 선수와 KB 모두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풀이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윤 회장의 선수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단단한 KB스포츠패밀리 구축에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며 "선수 생일에 수제케이크, 꽃바구니 및 축하카드 등을 챙길 뿐만 아니

라, 전화나 카톡 등으로 격의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16 리우올림픽 당시 박인비 선수는 허리, 손목 통증 등으로 한 차례의 투어우승도 없었고, 중도포기와 킷탈락을 반복하며 마음 고생이 심했다. 그러나 윤 회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박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메달을 획득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부담감을 내려놓고 부상 없이 즐기다 오시라"고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지 선수역시 인연이 깊다. 윤 회장은 취임 이후 처음 개최한 2015 KB금융스타챔피언십의 우승자인 전 선수에게 우승컵을 건네며 "우리 꼭 가족으로 만납시다"라고 했다. 실제 2017년 말 후원 협약을 맺게 됐다. 전 선수는 KB금융 후원 첫 해 스타챔피언십 개최 전주인 KEB하나은행챔피언십에서 2년 만에 우승하며, 대회 흥행이라는 커다란 마케팅효과를 거두게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12일 경기도 의왕 소재 NH통합IT센터에서 허병희 농협은행 IT기획부장(오른쪽 다섯번째)과 김만홍 SK C&C 금융/전략사업부부장(오른쪽 여섯번째) 등 양사 임직원들이 데이터센터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보고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銀, '데이터센터관리시스템' 본격 구축

NH농협은행은 12일 경기도 의왕 소재 NH통합IT센터에서 '데이터센터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로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농협생명·손해보험·투자증권 등의 IT자산이 집결한 NH통합IT센터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에 기반해 전산 장비 및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스마트빌딩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산장비·개폐기 등 주요설비와 사무공간에 IoT센서를 부착해 설비의 온습도, 전력이용현황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

해 장애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또 센터 내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센서를 통해 개방된 문의 위치를 운영자에게 안내하는 등 이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원삼 IT부문 부행장은 "NH통합IT센터에 IoT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결합해 센터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데이터센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2월 SK C&C를 주사업자로 선정해 2019년 9월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프로야구 응원팀 성적따라 우대금리"

신한 마이카 프로야구 적금·정기예금

신한은행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2019 신한 마이카(MY CAR) 프로야구 적금 및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신한은행이 한국프로야구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며 출시됐으며,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고객이 응원하는 구단을 선택해 가입하는 1년제 상품이다. 상품명은 '2019 신한 기아(KIA)타이거즈 적금', '2019 신한 두산베어스 정기예금'처럼 고객이 선택하는 구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2019 신한 마이카 프로야구 적금'은 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이자율 연



1.5%에 우대금리 2.5%포인트를 제공해 최고 연 4.0%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고객이 선택한 구단이 승리한 경기마다 우대금리 연 0.01%포인트(최고 연 0.8%포인트) 등을 제공해 프로야구 시즌 동안 고객이 선택한 응원팀의 매경기 승리 여부가 적금의 만기 금리를 정하는 재미를 더했다.

/안상미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5% ↑... 보이스피싱 '활개'

총 12만5087건... 203건 수사 의뢰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가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중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2만 5087건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했다. 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선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내용별 비중은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등의 순이다.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추심 신고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보이스피싱은 증가했다.

KB국민은행 외화예금 신규가입 이벤트

KB국민은행은 오는 6월 말까지 외화예금 신규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환테크~ 캐슬(castle) KB외화예금 신규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 기간 중 미화(USD) 1만 달러 이상 'KB외화정기예금'을 신규로 가입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1명) 5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등(2명) 3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등(200명) 1만원권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4등(3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등 총 503명에게 풍성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벤트 기간 중 영업점에서 'KB수출입기업우대외화통장'을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외화입출금(USD, JPY, EUR) 시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최대 70% 환율우대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보통예금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거래금액에 따라 외화정기예금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연도별 불법사금융 신고건수

(자료=금융감독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건수(건)	81,158	115,903	135,494	118,196	100,247	125,087	762,049
증감율	▲5.6%	42.8%	16.9%	▲12.8%	▲15.2%	24.8%	-

서민금융은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7만6215건으로 전년 대비 39.4% 늘었다.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4만2953건으로 집계됐다.

불법대부광고는 840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채권추심과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 역시 각각 20.9%,

34.2%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꾼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한화금융 계열사(생명, 손해보험, 투자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의 공동 브랜드 'LIFEPLUS'의 새로운 BI(Brand Identity)의 키비주얼.

/한화생명

한화 금융 계열사 'LIFEPLUS' 새 BI 공개

한화금융 계열사(생명·손해보험·투자증권·자산운용·저축은행)의 공동브랜드 '라이프플러스(LIFEPLUS)'가 새로운 BI(Brand Identity)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한다.

새로운 BI는 브랜드가 없는 브랜드로 알려진 '무인양품(無印良品)'의 아트 디렉터로 유명한 하라 켄야(Hara Kenya)가 디자인 했다.

하라 켄야는 BI 제작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로고를 통해 언제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인의 삶을 나타내고 싶었다"

며 "삶의 역동성 속에서 개개인의 삶이 LIFEPLUS의 가치를 만나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IFEPLUS의 새로운 슬로건은 '금융, 삶을 마주하다(Life Meets Life)'다. 삶의 가치에 집중하는 고객들의 트렌드를 반영했다.

12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올해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하고 균형잡힌 삶을 의미하는 '웰니스'를 주제로 LIFEPLUS의 콘텐츠를 확대한다.

/홍민영 기자 hong93@